

AI 여파에 거래은행 투자 연기까지 ... 경영난 봉착

# “나주 화인코리아를 살리자”

판매량 급감 ... 한달 새 120여억원 손실

市·한전 등 기관단체 소비촉진 적극 나서



나주 금천면에 위치한 화인코리아 생산공장에서 직원들이 삼계탕용 닭을 가공하고 있다.

닭·오리 생산업체인 나주 화인코리아(대표 나원주)가 거래은행의 투자 연기와 최근 AI(조류 인플루엔자) 여파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위기에서 나주시·한전 등 광주·전남지역 각 기관단체들이 닭·오리 소비촉진에 나서 화인코리아의 회생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축산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닭·오리 대량수매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화인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신한은행과 미주지역 삼계탕 수출확대를 위한 시설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 초까지 화인코리아의 재무구조는 자산총액이 부채를 넘어선 건전한 상태인데다, 2005~2006년 수출액도 국내 가구업체 전체(1천만달러)의 절반이 넘는 540만달러를 기록해 신한은행이 투자할 경우 글로벌 수출기업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올 들어 사료값이 지난해 대비 두배 이상 오른데 이어 4월 이후 AI가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을 휩쓸면서 판매 단가가 하락해 국내 판매량은 폭 떨어졌다. 전체 매출의 10%를 점유해온 수출물량도 덩달아 줄어 화인코리아는 위기에 봉착했다. 이로 인해 114억원의 매출 손실에다 공장 가동중단 등 운영손실 7억원을 합쳐 121억원이 한달여만에 날아갔다.

설상가상으로 신한은행도 화인코리아 주주의 3분의 1에 달하는 260여여원을 2개월여 뒤에 투자하겠다고 연기하는 바람에 위기를 맞고 있다.

금기가 나원주 대표를 비롯한 직원, 농가 등이 전국을 돌며 닭·오리 소비촉진운동에 나서게 됐다. 검찰·법원을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 나주시, 전남체육회도 팔방이 넘는 540만달러를 기록해 신한은행이 투자할 경우 글로벌 수출기업

나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각계에서 도움을 줘 용기가 생긴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 하루빨리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아 신한은행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 대표는 “정부가 농가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수매를 단체수매로 확대, 대규모 농장이나 협력업체들의 닭·오리를 수매해 경영난을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특히 위기에 처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965년 금성축산으로 출발한 화인코리아는 2003년 AI 여파로 부도를 내 올 4월 회의를 열어 회생을 모색했으나, 또다시 AI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360명의 직원과 240여 사육농가를 보유하고 있는 화인코리아는 연간 삼계용 닭 2천200만마리, 오리 520만마리를 처리하고 있으며 2006년 매출 909억원, 2007년 945억원을 기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기아차 올 상반기 흑자 낸다

조남홍 사장 “환율급등 효과 기대”

조남홍 기아자동차 사장은 14일 “올해 상반기에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린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자동차의 날’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환율이 좋은 효과를 주고 있는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상반기에는 흑자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사장은 또 올해 노사관계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시장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어 힘들겠지만 서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사장은 “단순한 비용절감이 아니라 기능이나 품질에 영향이 없도록 하면서 신차 디자인에서부터 출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닭·오리고기 많이 먹읍시다

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와 전남대병원(병원장 김영진)은 14일 전남대병원 구내식당에서 닭·오리고기와 달걀 소비촉진행사를 가졌다.

(전남농협 제공)

## 금융권, AI 피해 업체 금융 지원

대출금리 최고 1.5%P 우대·범인엔 금리 할인 등

금융권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14일 피해를 입은 가계에 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1.5%포인트 우대하고,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최저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법인의 경우 금리를 최고 2.0%포인트 할인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업은행도 가금류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금액 중 3억원까지 대출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7월까지

한시 시행한다.

기업은행은 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하기 위해 담보나 보증서가 있는 경우 영업점 심사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고 지점장의 금리감면권을 1%포인트 추가로 확대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가금류 생산업체 뿐 아니라 가공과 유통, 소비단체 등 모든 단계의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코트)은 7월까지 피해 기업의 운전자금에 한해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연합뉴스

## 중소 접대 폭탄주·골프 순

업체 88%가 “접대는 필수”

중소기업이 거래처와의 영업을 위해 대개 ‘폭탄주’를 돌리는 술접대를 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기업이 앞으로 문화접대로 바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60개사를 대상으로 ‘문화접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88.3%가 거래 관계를 위해 접대를 하고 있었다.

이들이 주로 하고 있는 접대는 술접대(74.4%,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골프(40.6%), 문화접대(33.1%), 식사접대(11.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술접대를 하는 기업은 대개 월 1회 이상(45.2%) 폭탄주를 마셨다.

중소기업이 문화접대로 주로 하는 분야는 뮤지컬(31.4%), 도서(27.5%), 음악회(19.6%), 스포츠 관람(19.6%) 등이었다.

중소기업이 기업 내부의 조직 지속력을 다지기 위해 주로 회식(82.2%, 복수응답)과 야유회/체육대회(78.6%)를 하고 있지만, 문화활동(31.2%)을 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이들 기업이 직원들과 함께 했던 문화활동은 영화(49.3%, 복수응답), 도서(21.2%), 뮤지컬(16.4%), 연극(15.8%) 등이었다.

/연합뉴스

## “양도세 불성실 신고 40% 가산세”

광주국세청 2만명에 안내문

올해부터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 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확정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기주)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6월2일)을 맞아 지난해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확정 신고대상자 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확정 신고대상자는 지난해에 양도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해당된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연도 중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면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종전의 10%보다 상향된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연간(5월1일~6월2일)을 맞아 지난해에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확정 신고대상자 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확정 신고대상자는 지난해에 양도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獨 에센 타이어 전시회

금호타이어 30종 출품

금호타이어는 20일부터 4일간 독일 에센에서 열리는 2008 에센 국제타이어 및 부품 전시회에 참가해 SOLUS KH19 등 친환경 타이어를 비롯한 30종의 제품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1960년부터 시작된 에센 전시회(Essen Fair)는 이탈리아 볼로냐 전시회와 더불어 세계 2대 타이어 전시회로 올해는 40개국에서 570개 업체가 참가한다.

금호타이어 오세철 사장은 “이번 전시회의 테마는 친환경”이라며 “전 제품에 적용해온 저연비, 저소음, 저마모 기술을 자신있게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이트레블**  
 (주) 조이트레블  
 대표 전화 (062) 234-3222  
 팩스 062-234-3222

**기쁜소식**  
**조이트레블 특가행사!**  
 5월 15일 ~ 5월 31일  
 부킹결제할당 - 행사 당일 적용

장사/장가게 4일 399,000  
 1. 장례/장사/장가게 4일 399,000  
 2. 장례/장사/장가게 4일 399,000  
 3. 장례/장사/장가게 4일 399,000

**보통 - 3인실**  
 3인실+욕실+화장실+냉난방+TV+세탁기+냉장고+전자레인지+에어컨+주차장+관리비  
 329,000  
 359,000  
 629,000  
 429,000  
 769,000  
 869,000

**특별가**  
 399,000  
 1,990,000

**1. 이태리빌딩 8일 1,990,000**  
**2. 서유림 5개박 11일 2,190,000**

**대만/이류/하편 4일 899,000**

**마카오/홍콩/심천(주대운선) 5일 780,000**

**미국비자**  
**중국비자**

미사당장사실용전화: 062-233-5900